【一】 第五千六百四十號 (昭和十年一月三十日第三種郵便物認可)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昭和十年七月一日(月曜日) (第二版) (日刊)

朝鮮日報

夕刊 三十日(日)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鐵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朝鮮豫算의 負擔增加

人民負擔增加는不可

一

大藏省에서는 明年度 豫算編成에 際하야 公債發行額을 可及的 減額하려고 增稅에 依치안흔 新財源을 捻出할 方策으로 鐵道、遞信、專賣의 各特別會計의 分擔을 從前대로 繼續시키는外에 새로 이것을 朝鮮、臺灣、關東州等 各特別會計에도 擴充하야 約一千二百萬圓程度의 一般會計의 負擔을 轉嫁시키기로하얏다 한다。豫算編成期가 되면 어떠한新財源方針이 생길가 注目되는터인데 今年에 드러와서는 恩給負擔을 三百萬圓이나 朝鮮에 더 分擔시키고、또 年一千二百萬圓의 補充金도 節減한다 하고 또다시 軍費의 分擔說까지 傳하는이때 減債基金의 分擔說까지 이러나니 大體 가뜩이나 人民負擔의 加重해가는 輿論이 熾烈해가는 이때에 어떠한 影響을 줄것인가。

二

元來 恩給이라든가、軍事費라든가는 中央政府의 負擔으로 되엇섯다。그 理由는 朝鮮에 財源이 不足하야 이것을 負擔할 能力이 적엇기 때문이엇섯다。그러므로 年年 一千二百萬圓 乃至 一千五百萬圓의 補充金을 中央政府로부터 朝鮮에 支出해오던것이 아니랴。그런데 이財政負擔의 狀態는 從前보다 달라진것이 적다。歲入、歲出이 明治四十三年頃에 比하면 十六、七倍의 增加를 보엿다할지라도 그實 朝鮮의 民力에 알마즌 歲入、歲出이 아니라 負擔에 넘치고 要求에 덜 맛는 歲入、歲出이엇든것은 吾人이 一二次만 論한것이 아니다。그러므로 恩給分擔을 增加시키며 軍事費를 分擔하라하며 補充金을 節減하며 더욱 減債基金을 朝鮮에 分擔시킴은 不可한 일이다。

三

勿論 朝鮮의 豫算이 國營事業의 增大와 稅制改正에 依한 人民負擔의 均衡으로 漸次 膨脹을 가주어오게된것가티 보이는것은 事實이다。그리하야 年數百萬圓의 負擔增加쯤은 그다지 苦痛을 感하지 안흘뜻도하다。그러나 前者에도 論評한바와가티 朝鮮의 國營事業은 거의 獨立會計가 되다시피하야 利潤을 事業擴大에 供할뿐이오、人民負擔의 輕減이라든가 人民緊要의 社會事業에 던지는것이 적으며、또 稅制의 改正은 人民의 負擔均衡보다도 負擔增加를 招해올뿐이다。그러므로 萬一 이에 如上의 負擔을 더 增加시킨다면 人民의 참아 견딜바 못될것이다。況 明年度에는 移民計畫가든 大事業이 잇다할에랴。

四

朝鮮에는 緊急히 財政을 要하는바가 만타。例컨대 義務敎育實施에 依한 國庫補助의 增大、自作農創定에 依한 國庫補助、乃至起債、都市家屋自家化計畫에 依한 貸付資金等等이 다 그것이다。그런데 이 焦眉의 急한 重大事業을 뒤로돌리고 中央政府의 負擔을 輕減코저 朝鮮서 입때 負擔치안튼 減債基金을 分擔하게 하며 恩給分擔을 增大케하며 補充金을 節減하며 軍事費를 分擔시킨다 云云함은 너머도 朝鮮의 人民事情을 無視한 措置라할것이다。中央當局의 反省을 促하는바이다。

滿洲里會議 都是無進展

[電通滿洲里二十九日發] 滿洲里第十次會議는 二十九日午後一時부터開하고 前回問題가된 國境決定에對하야 討議하엿스나 結局 何等進展을보지못하엿다

獨逸建艦明細表 英政府提示拒絶

英獨間秘密協定이라고 佛國海軍不平滿滿

[電通巴里廿八日] 佛國政府側으로 듯건대 英國政府는 駐英佛大使가 英獨海軍協定의 重要部分인 建艦計畫을 知悉하려고 建造時機明細表의 內示를 要求하엿든바 右는 英獨間의 秘密事項에 屬한다고 稱하야 同大使에 提示를 不肯하엿다。佛國海軍에서는 此에 對하야 極度의 反感을 품고 英國의 如斯한 態度는 將來의 英佛海軍交涉에 重大한 難礁를 스스로 던진것이라고 非難하고 잇다

佛伊가 固執하면 英은 個別的外交에

이든特使의 復命이 잇슨後에 英政府內强硬論擡頭

[電通倫敦二十八日發] 英國政府가 佛伊兩國에 特派한 이든無任所相은 羅馬及巴里會談의 結果를 報告하엿는데 右復命에 對한 英政府의 態度는 二十八日及그以後의 閣議에서 決定될터이다 閣內一部에서는 佛伊兩國이 서로 獨自의 立場을 固執하는境遇에는 英國으로서는 從來의 國際協調方針을 變更하야 스스로 獨自의 立場에서서 個別的으로 問題處理를 하는것이 得策이라는 主張이 일게되엇다 特히 萬一 伊太利가 聯盟을 떠나 對에디오피아 自由行動을 開始한다는 風說과 가티 八月頃에 戰爭을 開하는 境遇에는 英國의 利益을 中心으로 獨自의 積極行動에 나아가는것이 必要하다는 意見도 相當히 有力하되여잇슴으로 今後의 英國政策의 動向은 가장 注目되야 或은 軍備以外의 問題로 過般의 英獨海軍協定과 軌道를 가티하는 國際的協定이 出現될는지도 알수업는터이다 軍事協定締結의 可能에 對하야 協議를行하엿다고傳하다

戒嚴司令部 當分間常置決定

[電通北平二十九日發] 北平軍事分會는 二十八日朝來 連續的으로 緊急會議를 開하고 協議한 結果 鐵甲車占領事件은 何等政治的背景이업는것으로 認定하고 事態가 惡化擴大함과 如한 아모런 性質이업는것이라고 보고잇는데 今後 如何한 事件이 發生할는지도 알수업다고 極力 未然에 이것을 防止하려고 當分間 戒嚴司令部를 常置하기로 決定하고 任命하얏다

巨人爆擊飛行艇 建造計畫發表

米海軍의 尨大計畫

[華盛頓二十九日發聯合] 海軍長官스완슨氏는 一九三五、六年度 海軍豫算에 基하야 海軍飛行機五百五十五臺의 建造의 第一着手로 二十九日 巨人爆擊機兼用飛行艇六十臺의 建造計畫을 發表하엿다 右는 一九三四年一月 산페드로 호노룰루間無着水編隊飛行으로 威的威力을 發揮한 P2Y一型飛行艇과 同型인데 다시 速度航續距離 其他에 對하야 一層考案을 加한것이다

豐臺事件主謀者 逮捕要求

[天津二十九日發聯合] 豐臺兵變의 主謀者白堅武는 目下某所에 潛伏하여잇는모양인데 中國駐屯軍當局에서는 中國軍當局에 對하야 그 一黨의 逮捕를 要求할方針으로 이미 手配를 命하엿다 軍當局에서는 關東軍과 關係가잇슴과 如한 言辭를 弄하야 巧妙한手段으로 煽動하려하는 述策에 對하야는 어데까지 嚴重하게 適切한 手段을 講究할 方針이다

카메룽參謀總長 뭇首相과密議

[羅馬卄八日發聯合] 佛國參謀總長가메룽將軍은 二十七日 가만히 羅馬에 와서 뭇솔리니首相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고 觀測된다 그런데 右會談은 佛伊相互援助

抗日戰의 英雄 蔡廷楷氏歸國

香港서무엇을劃策

[電通上海二十九日發] 上海事變 當時의 元兇 十九路軍長蔡廷楷氏가 福建事變으로 失敗後 歐米漫遊에 올라 各地에서 抗日戰의 英雄이라고 稱頌을 바드며 各國에서 反日分子를 煽動하얏는데 最近香港經由 秘密裡에 上海에 來하야 共同租界에 入하야 外人經營의 호텔에 投宿하엿다 上海米國總領事 카닝검氏等 米國側과 往來하며 무슨 劃策이지 劃策하고잇는것이 判明되엇다

多事多端한 國際政局은 한달을보내는 마즈막週間에 이르러 더一層多端하엿던 感이잇다 岡田內閣의 昭和十一年度 豫算編成 方針은 前週에도 紹介되엇거니와 二十五日 閣議에서 高橋藏相이 그方針을 說明하고 談話形式으로 聲明을 發表하엿는데 亦是 兵農財三全主義와 公債漸減主義를 根幹으로하야 國防費調節과 旣定經費節約을 中心으로 豫算分奪主義를 一掃하자는 方針이엇다 그러나 아모래도 二十二億突破는 不可避라하니 豫算編成에 關連한 政局의 危機도 업스리라고는 할수업다 他方 外交問題로

察省問題

도 畢竟 停頓、逆轉을일삼고 數三次 獨石口方面의 滿國國境을 엿보아 이제將次 곳 큰兵禍가 察哈爾에서 일어날것가티 紛糾하고 國府도한 文書回答을 不應한다는 報道가傳하야 決裂이豫想되던 察省問題도 二十七日에 察省主席代理 秦德純氏와 土肥原關東軍司令官代理가 會見하고 覺書를交換한結果 日本要求를 全面的으로 承諾하야 一段落을짓게되엇다 이는主로 責任者處罰 陳謝表示 排日行爲再發阻止保障 非武裝地帶設置等을 文書로 回答한것이다 이리하야 一時多事하던 北中에 寧日이오는가햇드니 二十八日의 北平事變이 意外로

北平兵變

이勃發하야 戒嚴令이宣布되엇다고하엿다 從來의經驗으로보아 中國서 아모래도 問題를 이르키려니 무슨일이잇스려니하던 內外人들은 俄然緊張하야 至急報를苦待하엿다 그러나 通信조차 두서가업고 統一이업서 萬軍의兵變이니 白李兩軍의구려니 于東擴軍의짓이니 도모지갈피를 잡지못하엿다 結局은逼敵의神經作用이엇다는것을 結論할수바게업스니 兵變이라고까지할것도업는 小數兵의侵入이엇고 아모根據업는것이엇다는것이明白하게되엇다。泰山鳴動에 鼠一匹格이엇다。

그러나 英獨協定以來 文字그대로無秩序한歐洲政局은 接近과 離反의錯綜을反覆하고잇슬뿐이니 英獨海軍協定成立은 이때까지 對獨問題에 意見을가티하야共同合作을 歐約하다시피한 英佛伊三國關係에一大波紋을 이르키게하엿스니 佛伊가 이에 絶對反對의態度를取하자 英國은 이든特使를 巴里와 羅馬에 派遣하야 佛伊의 諒解를 求하게하엿다 即 巴里의

英佛會談

에서 이든特使는 英獨協定이 目的이며 英海軍政策의 延長에不過하다고 縷縷說明하엿스나 이는 곳까지 英政府 今回行動은 倫敦宣言主旨에 違反되는것이오 陸海空三軍에 關한 協定案은 安全保障條約과 不可分이라는言명을强調하고 安全保障을要求하야못까지 不滿을 表示하엿다 이든氏는 이어서 羅馬를訪問하고 뭇소리니首相과의

英伊會談

의 幕으로 옴마스나 이도亦 伊의 强硬態度로 事實上 決裂로 終幕하게되엿스니 即 伊政府는 英獨協定을 華府、倫敦兩條約의 廢棄라고보아 伊太利로서는 華府條約의比率을 遵守할수업다는것을 前提로 英獨協定成立으로서 國際條約違反이라고하며 聯盟에 提訴할 用意가잇다고하며 不知意而時에는 聯盟脫退도 不辭한다는態度를 보이고 對에티오피아問題에關한 英國의調停案을 『對에티問題에關한限 他國容喙不許』라는 强硬態度로一蹴하게되엇다 이다시 英獨協定에 對하야 英佛關係는 疎遠해지고 佛伊接近에 拍車를 加하게되엇스니 佛國參謀長의 伊國訪問이 實現되어 兩國參謀總長이 會見한結果 陸軍提携를中心으로한

佛伊協定

이 成立되엇다는 說도 傳한다。어쨋하야 聯盟의 最高機關이오 그規約은 金科玉條로 아는 聯盟의 威信은 떠러지게되엇다。一方 이러한 情勢에 對處코저하는 各國은 建艦競爭만을 일삼게되엇스니 佛國도한 新艦建造를發表하고 米國이 航空艦等 十三隻建造案을 發表하엿다 軍費擴張과 競爭합分散을 일삼는 列强은 將次 어대로 갈가?

四十五萬鑛夫에 突然總罷業命令

七月一日午前零時一齊罷業?

NRA崩壞의反映

[華盛頓二十九日發聯合] 合同鑛山勞働組合委員長 루이스氏는 二十九日 合同鑛山勞働組合所屬 四十五萬의 炭鑛勞働者에게 對하야 七月一日午前零時를 期하야 一齊히 總罷業을 敢行하라는 指令을 發하엿다 合同鑛山勞働組合은 六月十七日의 勞働條件協定滿期를 압두고 이미 月餘에 亘하야 資本家側과 折衝을 行하고 잇섯던바 組合側은 交涉成立의 可望이업다고 去六月十七日로 協定이 滿期됨에 따라 十七日을 期하야 總罷業斷行을 宣言하엿다。그런데 그後 루즈벨트大統領、퍼킨스勞働長官、上下兩院議員의 斡旋에 依하야 總罷業命令은 一時撤回되어섯다 그後事態發展은 全혀 組合側의 期待에 反하야 瀝靑炭業을 公用企業에 加하려는 가페法案도 流産에 終하고 루즈벨트大統領도 N.R.A崩壞以來 드되어 N.R.A에 代할 法案을 提示하기에 이르지 못하게되매 畢竟合同鑛山勞働組合에서는 最後手段에 訴하야 二十八日夜 四十五萬의 炭坑勞働者에게 斷乎 總罷業의 命令을 發하게되엇다

賃銀協定決裂로

[華盛頓廿九日發] 米國炭坑勞働者組合代表 레우이스氏는 二十九日使用者側과의 賃銀協定交涉이 決裂되엇다는理由로 全組合員에對하야 來七月一日부터 罷業을 斷行하라는 命令을 發하엿다 右命令으로 炭坑夫는 總數四十二萬三千名에 達한다

國府首腦會議 抗日親日兩派對立

結局親日派勝利乎

[電通南京二十九日發] 蔣介石氏의 召集인 首腦合同會議는 二十八日午前은 行政院에서 또 밤에는 鐵道部第一會議室에서 또 二十九日은 汪精衛氏私邸에서 都合 四回에 亘하야 開하고 大體의 審議를 終了하엿스므로 汪兆銘、黃紹雄兩氏는 二十九日、張群氏는 三十日夜 各各南京發 上海에 向하기로 되엇다 確聞하건대 今回의 會議는 國民政府部內에 一、日本의 數次의 對華에 對하야 이以上 忍耐키 難함에 依하야 此際에 對日態度를 變更하라 一、此際에 中國의 態度를 表示하기 爲해서는 日中直接交涉으로하야 日本側의 最後의 態度를 示하야 日本側의 猜疑心을 一掃하지안하면 안된다는 兩論이 잇서 서로 對立하고잇기 때문에 이것을 解決하려고 招集된것이며 今回의 會議에서는 兩派의 妥協的具體案을 決定한後 根本方針으로 一、日本側에서 二原則으로 提唱한 事項은 모다 中國側이 反省할 必要가잇다 一、今日의 事態에 到達한以上 從來의 過大視한 國內의 反對論을 무릅쓰고 積極的으로 根本的國交調整을 ... 一、汪精衛氏의 外交政策에 全幅的支持를할것 等의 重要事項을 決議하고 對日關係 是正의 具體的方策은 先ずㅓ 親日的傾向을 擴充시킬것等 各種의 意見이 開陳되엇는데 汪精衛氏가 此際意見을 綜合하야 決定하기로하고 最後로 會議의 決議로서 蔣介石氏에 對하야 北中問題의 失敗를 糾彈하고 反省시키도록 特히 政府各部를 嚴重督勵하기로 決定하엿다

來週初對加奈陀 通商擁護法發動

[電通東京電話] 日本政府는 加奈陀의 日本商品輸入에 對한 不當한 防遏에 對抗하기爲하야 드듸어 通商擁護法適用의 方針을 決定하는同時에 一方駐加公使로하여곰 加奈陀政府와의 사이에 交涉中인데 加奈陀政府는 依然히 日本商品에 對한 態度를 緩和치안코 大藏省은 加奈陀公使의 外交交涉의 結果를 기다려 特別委員會를 召集하고 特別委員會에서決定한 擁護法發動決議의 公布手續을 取하기로 되엇스므로 發動은 大體來週初라고 보이다

廣、一萬平方呎 地下金貨貯藏庫

一千三百의常備軍으로警戒

數百萬弗金貨保管次

[華盛頓二十九日發聯合] 米國政府는 今回 켄터키州 녹스에 經費四十五萬弗로 廣一萬平方呎의 大地下金貨貯藏庫의 急設命令을 發하엿다 軍에서는 一千三百人의 軍隊를 常設하야 警備에 當케할 計畫인데 右는 數百萬弗에 達하는 政府所有金貨를 襲撃의 侵入外敵에게 攻擊되기 쉬운 海岸諸都市로부터 內地의 安全地帶에 옴기려는 米國政府의 政策을 實行에 옴기려는 것이다 現在 紐育과 필라델피아 海岸都市에 多量의 金貨를 所藏하고잇는데 金庫가 完成되면 此等의 金貨는 어에 移送될터이다

黃金國의悲哀

賃銀協定決裂로

人事·集會

▲庄司文雄氏(法政新聞編輯長)本社新築社屋落成人事次來社

▲檜野數雄氏(朝鮮新日新聞社)同上

▲金承鉉氏(朝鮮中央日報記者)同上

▲鄭寅燮氏(李王職典祀)因病調養中今月二十八日京城府新橋洞二五番地自宅에서長逝、七月二日發靷

日曜氣配

◇株式 依然 沈滯不振으로 買氣는 極度로 委縮되아 氣配가 弱함

大新 一八○、八○ 鐘新 一二三、○○ 日產 一二六、一○ 東新 一三五、二○

◇期米 水害에依한 滿米는各地에 相當히 잇슬 모양이며 一面 救濟用拂下가 잇스리라고 보이어 氣勢이나 明日의 天氣如何에 달렷다

◇綿絲 強保遲張(二割足決定)

氣配強硬

大阪地方天氣 雨

米日爲替

今日米日爲替는 前日同樣 二十九弗九仙이다

八面鋒

大阪、京都一帶에 三十年來의 大洪水가 가서 死者、行方不明된者가 無數하고 浸水、倒壞家屋이 大阪府下만 十五萬戶라고。

◇

昨年에 風水災가 잇더니 今年에 또다시 水禍이다 天災오나 가엽다 어찌 自然의 威脅이 아리큰고。

◇

大阪과 京都에는 朝鮮人이 二十萬만흘 넘어 산다。안죽 詳報는 업고 危險狀態에 잇다 고만하니 그 詳報를 기다릴 밧게。

◇

在東京朝鮮音樂家協會一行 今朝旅團을 무흥스고 入京 大邱서 超滿員되엇슴을 깃버하야 車中에서 한잠도 못잣다는것은 同團團長 金文輔氏의 告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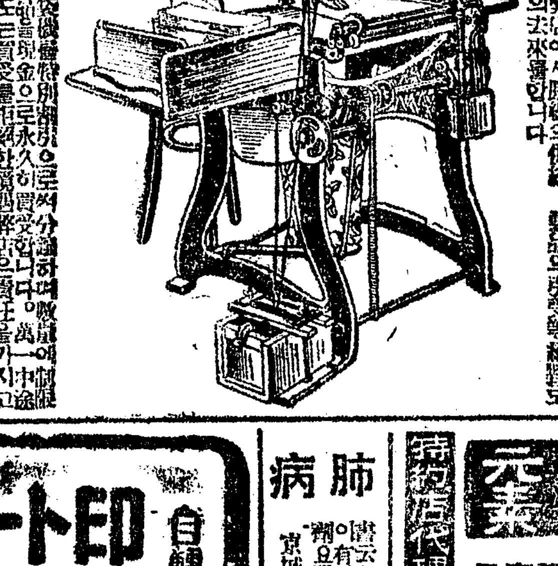
◇

長安의 士女여、오시라、公會堂으로!

今日本紙四面

百圓餘의資金으로 副業에 紙袋製造

前途有望하고 收入確實



家庭副業으로 紙袋의 製造는 여자의 손으로도 容易히 할수잇는 有望한 副業입니다 ... 丸見屋本店 大阪市東區玉造本町十六 振替大阪五九三六

보금자리를 둘 곳

콜럼비아레코-드 傑作名盤 夏期特別發賣

流行歌 아득한千里길 蔡奎燁 (40521)
流行歌 故鄕을차저가니 姜弘植
재즈송 서울가는영천물 姜弘植 (40522)
民謠 방아타령 (40523)

製造發賣元 株式會社日本蓄音器商會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產婆 金孝丸
入院隨意 診察

家庭秘傳 和樂의元 調經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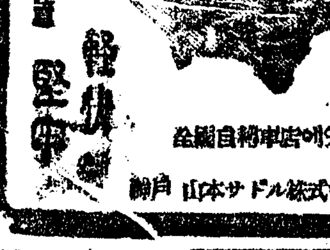
發賣元 調經液 本舖 勉堂商會 江景邑黃金町四一

特約店代理店募集

肺病 梧南醫院

京城東大門外新馬場里七○八

グレート印 自轉車用 스프링사도루



神戶 山本サドル株式會社

桃花劇場

六月二十九日부터大公開!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新興키네마社超特作 入江たか子 白蓮 全十二卷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마리온케렌드 심알시토니 人情喜劇 日姬三君 全八卷